

3.1운동의 교육적 의미와 과제 : 기독교학교를 중심으로

박상진(장신대 교수, 기독교교육학)

I. 들어가는 말

3.1운동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전 분야와 관련을 맺고 있지만, 특히 교육 분야와 깊은 관계가 있다. 3.1운동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한 만세운동이며, 전국 학교들의 교사와 학생들이 분연히 일어나 거국적인 운동이 되게 하였다. 물론 3.1운동은 특정 분야나 한두 가지의 동인에 의해서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민족 독립운동이었음이 틀림없다. 인용하는 그의 책 『한국민족 독립운동사 연구』에서 3.1운동의 발생 요인으로서 7가지를 적시하고 있다. 상해 신한청년당의 흐름, 연해주와 만주의 독립운동의 흐름, 재미주 교포들의 독립운동의 흐름, 재일유학생의 '2.8독립선언'의 흐름,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의 흐름, 기독교 독립운동의 흐름, 국내 청년 학생들의 독립운동의 흐름 등이 다.¹⁾ 그는 이상의 일곱 개의 흐름이 거의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면서 독립선언과 독립시위운동의 전개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며,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계의 연합 및 이들과 학생단의 연합이 3.1운동이라는 전민족적 독립운동의 조건으로 보았다.²⁾

그러나 3.1운동을 가능케 하였던 여러 요인 중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연코 크다고 할 수 있다. 3.1운동에 점화를 일으킨 2.8 독립선언이 유학생들에 의한 것이고, 민족대표 33인 중 오산학교 교장인 이승훈 선생을 비롯한 교육자들의 역할이 중대하였으며,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정재용을 비롯한 많은 시위 참여자들이 교사, 학생, 졸업생들이었다. 무엇보다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전국 각지에 설립되어있던 학교들이 그 지역의 만세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학교들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당시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있던 기독교학교의 역할이다. 이 글은 3.1운동이 전국적인 만세운동으로 펼쳐지게 된 데에 있어서 기독교학교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를 분석하고, 당시 기독교학교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요인을 고찰하고, 오늘날 기독교학교에 주는 함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3.1운동과 기독교학교의 역할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일어난 만세운동만이 아니라 그 이후 약 1년에 걸쳐 우리나라 전역과 세계 각 지역에서 일제의 한반도 강점에 대해 저항하며 민족의 독립을 선언한 운동을 일컫는다.³⁾ 이런 점에서 3.1운동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초기 단계'와 '확산 단계'이다.⁴⁾ '초기 단계'는 독립선언문이 작성되고 이것이 태화관과 탑골공원에서 선포되는 과정이며, '확산 단계'는 이러한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거족적으로 일제에 항거하는 민족독립운동이 펼쳐지는 단계이다. 이 두 과정에 있어서 기독교학교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였지만, 특히 '확산 단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있던 기독교학교가 큰 공헌을 하였다. 3.1운동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3.1만세운동을 이끌었는데,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의 종교인들이 협력하여 3.1운동을 기획, 실행하였다. 역사에 길이 남을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모두

1) 신용하, 『한국민족 독립운동사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85), 209-236.

2) 신용하, 『한국민족 독립운동사 연구』, 255.

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 (서울: 기독교문사, 2005), 24.

4) 신용하는 이를 '초기조직단계'와 '민중운동단계'로 구분하고 있다(신용하, 『한국민족 독립운동사 연구』, 207).

가 종교인인 것이 이를 보여준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인, 천도교인이 15인, 불교인이 2인이라는 점은 당시 천도교인이 300만 명인 것에 비해서 기독교인은 전 인구의 1.5%에 불과한 26만 명 남짓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큰 비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⁵⁾ 그런데 3.1운동의 초기 단계만이 아니라 확산 단계까지를 포함하여 살펴본다면, 3.1운동은 한국교회와 함께 ‘기독교학교’가 주축이 된 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당시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있던 기독교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각 지역마다 3.1운동을 확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919년 7월 8일자 매일신보는 “소요 이래로 출석생도가 줄어든 각 사립학교는 전과 같이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음을 썩이는 모양인데 더욱이 타격이 심함은 ‘종교학교(宗敎學校)’이니 이번 소요의 화원(禍源)이 이 네 학교에서 많이 났음으로 사회의 지목을 받음”이라고 적고 있다.⁶⁾ 이것은 경신학교, 정신여학교를 비롯한 기독교학교가 3.1운동의 진원지였음을 보여준다. 이만열은 그의 논문 ‘3.1운동과 한국 기독교: 3.1운동에서의 한국 기독교의 위치’에서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회는 1911-1912년에 “650여개의 학교를 운영하여 1만 4,400여 명에게 신앙과 민족을 교육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교회와 기독교 경영 학교에서 훈련받던 이들이 3.1운동의 인적 토대의 일부가 되었다”고 적고 있는데, 기독교학교의 학생들이 3.1운동의 중요한 인적 요소임을 인정하고 있다.⁷⁾ 특히 3.1운동의 민중화 단계에서는 그 지역에 “교회나 기독교계 학교가 있으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주동이 되어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지역마다 설립되어 있는 기독교학교의 학생들이 3.1운동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⁸⁾ 최재건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기독교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3.1 정신과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에서 “이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도 교회들과 교회가 세운 학교들 중심이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에 의하면 “특히 지방마다 기독교계 학교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⁹⁾ 기독교회와 학교들의 시위 참여가 다른 단체들보다 높았고 전국에 확산되는 데에 제일 큰 역할을 하였다.”¹⁰⁾ 일본 동지사대학교에서 교회사를 연구한 이치만은 일제 강점기 당시의 총독부 자료들을 검토, 분석한 결과 “3.1운동을 대대적인 운동으로 기획하고 점화시킨 것은 국내의 종교계와 학생층이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는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된 데에는 지역별로 설립되어 있던 기독교학교들의 역할이 컸다고 보았다.¹¹⁾ 그는 특히 기독교학교의 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당시의 수많은 기독교 여학생들이 수난을 겪게 되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기독교계 여학생과 기독교여성의 만세시위운동에 대해, 현·경은 가혹한 탄압을 가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시위의 가담정도와 관계없이 체포된 여학생과 여성들에게 전라의 상태에서 구타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¹²⁾

기독교학교들이 3.1운동에서 이렇듯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890년을 전후해서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학교들이 전국 각 지역에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1884년 9월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알렌(Harace N. Allen)이 한국에서 선교를 시작한 이후 1885년 4월 북장로회 선교사 언더우드(H.G. Underwood), 미감리회 선교사 아펜젤러(H.G. Appenzeller) 부부가 한국에 들어와 각각 경신학당과 배재학당을 설립하였으며, 그 직후 스크랜턴(W.B. Scranton)과 스크랜턴 대부인(M.F. Scranton) 등이

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 38.

6) 매일신보 1919년 7월 8일. 이회천, 김혜경 엮음, 『정신130년사(상)』 (서울: 흥성사, 2017), 90-91에서 재인용.

7) 이만열, “3.1운동과 한국 기독교: 3.1운동에서의 한국 기독교의 위치,”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34(3), 1990. 3., 117.

8) 이만열, “3.1운동과 한국 기독교,” 125.

9) 예를 들면, 서울의 세브란스 의전, 연희전문, 배재, 경신, 이화, 정신, 배화, YMCA영어학원, 성서학원, 협성신학교, 개성의 호수돈, 송도고보, 재령의 사립송의, 명신. 평양의 송실전문, 송덕, 송실, 송의, 광성, 취명, 선천의 신성, 보성. 청주의 오산, 의주의 양실. 강계의 영실, 명신. 원산의 진성, 성진의 보신, 함흥의 영생, 공주의 영명, 부산의 일신. 마산의 창신, 의신. 대구의 계성, 신명. 전주와 기전, 신흥. 군산의 영명, 광주와 송일, 수피아. 목포의 영흥, 정명 등에서 주도하였다.(최재건, ‘3.1 정신과 대한민국의 건국정신,’ 한국기독교학회, 『응답하라 1919: 3.1정신과 교회의 미래』, 2018. 10. 12, 35)

10) 최재건, ‘3.1 정신과 대한민국의 건국정신,’ 29-36.

11) 이치만, “3.1운동에서의 장로교의 역할과 1440 프로젝트,” 한국기독교학회, 『응답하라 1919: 3.1정신과 교회의 미래』, 2018. 10. 12, 202.

12) 이치만, “3.1운동에서의 장로교의 역할과 1440 프로젝트,” 213.

입국하여 이화학당을 설립하였다. 미국 북장로회만이 아니라 1889년 호주장로회, 1890년 영국성공회, 1892년 미국 남장로회, 1896년 미국 남감리회, 1898년 캐나다장로회 등이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이들이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 기독교학교를 설립하였던 것이다.¹³⁾

이들 중 한국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교회는 미국 북장로회, 북감리회, 남장로회, 남감리회 순이다. 특히 북장로회 선교부는 서울, 평양, 선천, 대구 지역에 각각 남녀 미션스쿨(mission school)을 설립하였는데, 서울에는 경신학교와 정신여학교, 평양에는 송실학교와 승의여학교, 선천에는 신성학교와 보성여학교, 대구에는 계성학교와 신명여학교 등 8개 학교를 설립하였다. 반면 남장로회는 주로 호남지역에 미션스쿨을 설립하였는데, 전주의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 광주의 송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 군산의 영명학교와 멜볼딘여학교, 목포의 영흥학교와 정명여학교, 순천의 매산학교와 매산여학교 등이 있다. 이들 기독교학교들은 캐나다장로회가 부산, 경남 지역에 설립한 일신학교, 명덕여학교, 의신여학교 등과 함께 3.1운동의 지역별 진원지가 되었다. 당시의 지역별 선교사들이 설립한 기독교학교들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각 지역에 설립된 미션스쿨¹⁴⁾

지방	학교명	설립연대	선교부
서울	배재학당	1885	미감
	이화학당	1886	미감
	경신학교	1886	북장
	정신여학교	1887	북장
	배화여학교	1898	남감
평양	송실학교	1897	북장
	승의여학교	1903	북장
	광성학교	1894	미감
	정의여학교	1899	미감
선천	신성학교	1906	북장
	보성여학교	1907	북장
대구	계성학교	1906	북장
	신명여학교	1903	북장
재령	명신학교	1898	북장
강계	영실학교	1908	북장
인천	영화여학교	1892	미감
공주	영명여학교	1905	미감
	영명학교	1907	미감
이천	양정여학교	1904	미감
수원	삼일학교	1903	미감
	매향여학교	1907	미감
전주	신흥학교	1907	남장
	기전여학교	1912	남장
광주	송일학교	1908	남장
	수피아여학교	1908	남장
군산	영명학교	1902	남장
	멜볼딘여학교	1902	남장
목포	영흥학교	1903	남장
	정명여학교	1902	남장
순천	매산학교	1913	남장
	매산여학교	1914	남장
함흥	영생학교	1907	캐나다
	영생여학교	1903	캐나다

13) 박혜진, 『일제하 한국 기독교와 미션스쿨』 (서울: 경인문화사, 2015), 19.

14) 박혜진, 『일제하 한국 기독교와 미션스쿨』, 21.

성진	보신학교	미상	캐나다
	보신여학교	미상	캐나다
원산	보광학교	미상	캐나다
	루씨여학교	1903	남감
개성	한영서원	1906	남감
	호수돈여학교	1904	남감
	미리흠여학교	1906	남감
부산	일신학교	1895	호장
	동래일신여학교	1926	호장
마산	호신학교	1926	호장
	명덕여학교	1916	호장
	의신여학교	1913	호장
진주	시월여학교	1908	호장

물론 선교사들에 의해서만 기독교학교가 설립된 것은 아니다. 한국의 토착교회나 교인들에 의해서 기독교학교가 설립되었다.¹⁵⁾ 이는 네비우스의 ‘10대 선교방침’에 힘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Underwood)는 중국에서 활약하던 네비우스(J. L. Nevius)를 1890년 6월 초빙하여 “자립(自立), 자조(自助), 자주치리(自主治理)”에 의한 토착교회 설립 방법에 대한 권고를 듣고 이를 조선에 적용하고자 하였다.¹⁶⁾ 10대 선교방침 가운데 교육과 관련된 방침은 다음의 6가지이다.¹⁷⁾ “1) 전도의 목표를 상류층보다 근로계급의 귀도에 두는 것이 더 낫다. 2) 모성은 후대의 양육에 중요한 영향력을 주므로 부녀자의 귀도와 청소년의 교육을 특수 목적으로 한다. 3) 군소제에 초등학교를 설치함으로써 기독교 교육에 성과가 많을 것이니 선교부 소관학교에 재학한 남학생들을 교사로 양성하여 각 지방에 파송한다. 4) 교육받은 교역자를 배출하는 희망도 우리 교육기관에서 실현될 것이니 이 점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6) 모든 문서사업에는 한자의 구속을 벗어나 순 한글을 사용함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8) 따라서 전도를 위해 우리 자신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전도자의 교육에 전력해야 한다.”¹⁸⁾ 한국의 토착교회만이 아니라 개인에 의해서도 기독교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안창호의 대성학교, 이승훈의 오산학교 등 애국 구국운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이들 학교 배후에는 안창호의 리더십에 의해 형성된 신민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과 우리나라 토착교회가 세운 학교들뿐 아니라 이들 애국지사들이 세운 학교들도 기독교적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¹⁹⁾ 전국적으로 설립된 이들 기독교학교들이 3.1운동의 지역별 진원지가 되었다.

3.1운동에 당시 기독교학교들이 어떻게 참여하였고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서울지역의 경우 이곳에 설립되어 있던 경신학교, 배재학당,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등의 기독교학교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졸업생들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탑골공원에서 낭독되었던 “오등(吾等)은 자(茲)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 하노라”로 시작되는 독립선언문을 읽어 내려간 정재용은 경신학교 졸업생이었다. 3.1운동의 주역으로서 파리강화회의에 참여했던 김규식 선생도 경신학교 졸업생이었다. 이들 경신학교 졸업생들과 재학생 100여명이 함께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조선총독부는 이를 계기로 경신학교를 ‘혁명자 양성소’로 낙인찍어 수업과 신입생 선발을 불허하는 등 탄압을 자행하게 된다.²⁰⁾ 배재학당의 경우는 배재학당 교사 김진호 선생의 지시로 배재학당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각국 공, 영사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배재학당의 기숙사는 3.1 독립만세 시위운동의 모의장소로 사용되었다. 이

15) 임희국,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학교 설립: 토착교회의 기독교학교 설립운동을 중심으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편, 『평양대부흥운동과 기독교학교』 (서울: 예영, 2007), 107-158.

16)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123.

17) 김기석, 유방란, 『한국 근대교육의 태동』 (서울: 교육과학사, 1999), 80.

18)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1997), 221. 번호는 원래 사용된 번호임.

19) 강영택, “초기 기독교학교에서의 신앙교육,” 박상진 외, 『기독교학교 역사에 길을 묻다』 (서울: 예영, 2013), 117.

20) 경신사편찬위원회, 『경신사: 1885~1991』 (서울: 금영문화사, 1991), 355.

화학당은 유관순 열사의 모교로서, 3.1운동 당시 이화학당의 여학생들은 하얀 소복을 입고 대한문으로 행진하였다. 유관순을 포함한 5인 결사대는 기숙사 뒷담을 넘어 남대문 쪽으로 달려가 만세운동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3월 10일에 이화학당에 휴교령이 내려진다. 정신여학교 졸업생 김마리아는 3.1운동의 기폭제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도쿄 유학생들의 1919년 2.8 독립선언서 낭독에 깊이 참여하였으며, 2.8 독립선언서를 국내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일본 여자로 변장하여 죽음을 무릎쓰고 이를 실행하여 3.1운동을 점화시키는 불씨가 되었다.²¹⁾ 또한 정신여학교 기숙사 여학생 70명은 고종 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검은 땀가에 상복을 입고 일제에 저항하였으며, 3월 5일에는 대한문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고, 이에주를 비롯한 4명의 교사들과 60명의 학생들이 포승되어 끌려가게 된다.²²⁾

학생들의 만세시위가 극렬해지자, 총독부는 서울의 각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는데,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이 귀향하면서 오히려 전국적인 만세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화학당 여학생 김애사는 동교생 20명을 이끌고 3월 3일 평양의 만세시위에 가세하였고, 당시 16세였던 유관순은 4월 1일에 고향인 충남 천안으로 내려가 아우내장터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마침내 총독부에 의해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게 된다.²³⁾ 평양에서는 숭실학교, 승의여학교, 승덕학교, 광성학교 등이 연계하여, 3월 1일과 3월 4일에 대규모 만세운동을 일으켰는데, 승의여학교 교사 박충애는 시위를 북돋우기 위해 독립가를 작성, 배포하기도 하였으며,²⁴⁾ 숭실학교 학생조직대는 찬송가를 연주하며 행진하는 등 그 지역의 기독교학교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²⁵⁾

평안남도 선천에서는 보성여학교 학생들이 신성학교 학생들과 연계하여, 3월 1일 만세시위에 가세하였는데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태극기를 만들어 선천군 각 동네에 배포하며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²⁶⁾ 정주에서는 남강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가 3.1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남강은 기독교, 천도교, 불교가 연합하여 3.1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서명자 순서로 갈등을 빚을 때 “순서는 무슨 순서야, 이걸 죽는 순서인데 누굴 먼저 쓰면 어때? 손병희를 먼저 써?”라고 말하며 양보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²⁷⁾ 3월 2일에는 오산학교 교정에 교직원, 졸업생, 학생, 교인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만세운동을 일으켰는데 시위행렬은 1,300명 가량이 되었다. 3월 31일에는 일본 헌병들이 오산학교를 불태우고 결국 오산학교는 1년 반동안 폐교되었다. 개성에서는 미국 남감리회가 설립한 미리흠여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운 어유희가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는데, 그녀는 호수돈여학교와 미리흠여학교 학생들을 규합해 거리에서 만세운동을 벌였는데, 호수돈여학교 학생들은 미리 자퇴서를 학교에 써내놓고 시위를 시작했으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결사대까지 조직했다.²⁸⁾

대구 지역은 계성학교와 신명여학교가 협력하여 3월 8일 대구 서문 밖에서 만세시위를 하였는데,

21) 당시 동경여자유학생친목회장으로 활동하던 김마리아(1892-1944)와 동경의학교 유학생 황애스터(1892-1971) 등이 국내 여학생들의 운동 참여를 주도했다. 김마리아는 도쿄 조선기독교청년회관(YMCA)에서 열린 2.8독립선언 행사에도 직접 참여한 여성이다. 그는 2.8독립선언서 서명자 명단에 여성이 배제된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릴 정도로 열혈 여성투사였다. 김마리아는 도쿄 독립선언 이후 기모노 차림의 허리띠에 2.8독립선언서를 숨기고 국내로 들어와 유학생들의 독립선언 소식을 각지에 전파하면서 국내 독립운동을 호소했다. 그는 경성에서 여학생 독립운동 조직을 결성하다가 3월 6일 모교인 정신여학교에서 일경에 붙잡혔다. 일경은 어린 여학생들의 만세운동 가담 배후 인물로 그녀를 지목했다.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된 김마리아는 코에 불과 고춧가루가 부어지고, 가마니에 말려 몽둥이로 온몸을 맞는 등 모진 고문을 당했다. 당시 고문으로 그녀는 귀와 코에 고풀이 차는 병으로 평생 고통을 받았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박용옥, 『김마리아: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 (서울: 흥성사, 2003).)

22) 이희진, 김혜경 역음, 『정신130년사(상)』 (서울: 흥성사, 2017), 88.

23) 이치만, “3.1운동에서의 장로교의 역할과 1440 프로젝트,” 211-212.

24) 이치만, “3.1운동에서의 장로교의 역할과 1440 프로젝트,” 212.

25) 승의100년사편찬위원회, 『승의100년사』 (서울: 우일출판사, 2003), 128.

26) “3월 1일 오후2시 20분경, 보성여학교 학생 60여 명과 신성학교 학생 수백 명이 ‘조선독립단’이라고 쓴 깃발을 앞세우고 시위를 시작했다. 시위대가 군청 앞에 도달하였을 때 일본 수비대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많은 사상자를 냈다.” 일본군 수비대와 기마 경찰이 달려와 군청과 경찰서 앞을 질서 있게 행진하는 시위 군중을 상대로 총질을 한 것이다. 시위대의 기수인 신성학교 교사 강신혁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이때 모두 12명(일본 측 기록)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출처: 동아일보, “3.1운동 100년 역사의 현장, 제11화: 비폭력,” 2018. 7. 14.)

27) 오산중고등학교, 『오산관십년사』 (서울: 오산중고등학교, 1987), 137.

28) 동아일보, “3.1운동 100년 역사의 현장, 제11화: 비폭력,” 2018. 7. 14.

계성학교 학생들은 ‘혜성단’이라는 비밀 결사체를 만들어 일제에 항거하였다.²⁹⁾ 목포에서는 4월 9일에는 영흥학교와 정명여학교 등의 기독교학교 학생들의 주도에 의해 만세시위가 일어났는데, 정명여학교 학생 김정해(당시 14세)는 일본 경찰에게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일본 사람들은 어른만 애국심이 있고 아이들은 애국심이 없는 식충이들만 산다는 이야기군요. 조선 사람은 삼척동자도 나라를 사랑할 줄 알아요. 우리들은 벌써 14, 15세의 장성한 처녀들이예요.”라고 당당하게 말하였다.³⁰⁾ 전주에서는 3월 12일에 기전여학교 학생들이 신흥학교 학생들과 연계하여 만세시위를 주도하였고 이로 인해 남녀학생 70여명이 체포되었다.³¹⁾ 광주에서도 기독교학교인 수피아여학교와 숭일학교의 학생들이 주도하였고, 기독교인들이 호응하여 만세시위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남녀 학생 71명이 구금되었다.³²⁾ 이외에도 전국의 각 지역에서 기독교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3.1만세운동을 주도하여 만세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에 크게 공헌하였다.

III. 3.1운동의 동인으로서 기독교교육

어떻게 3.1운동 당시 전국 각 지역에서 기독교학교의 학생들이 분연히 일어나 일제에 항거하며 독립만세를 외칠 수 있었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유익을 돌보지 않고 희생을 각오하고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하였는가? 3.1운동을 가능케 하였던 요인들 중 국제정세의 변화, 특히 미국의 윌슨(Thomas Woodrow Wilson)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자결주의로 인한 민족독립의 가능성 증가와 고종 황제의 급작스러운 붕어(崩御)와 같은 외부적 요인도 있겠지만 특히 기독교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3.1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물론 자연과학에서의 인과관계처럼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기독교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졌던 현상들을 분석함으로써 너무나 분명했던 기독교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의 헌신적인 만세운동에의 참여를 설명하고자 한다.

1.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

3.1운동에 기독교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3.1운동의 정신이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이 지향하는 가치와 일맥상통하였기 때문이다. 1900년대를 전후하여 설립된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은 복음전파를 통한 선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민족교육을 추구함으로써 구국항일운동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³³⁾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기독교학교를 세울 때, 선교만을 중시하거나 서양문물을 전파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교육, 한국에 맞는 교육, 나라를 살리는 교육에 관심을 갖고, 그러한 이념으로 기독교교육을 실천하였다. 또한 한국교회와 한국인들에 의해 세워진 기독교 사립학교들도 신앙에 근거한 구국운동의 차원에서 기독교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일제의 압제에 항거하고 나라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학교 설립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기독교학교의 설립정신과 건학이념 자체가 애국애족과 민족독립, 항일과 구국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열악한 국제정세 속에서 자주정신과 애국심을 가르침으로써, 열강의 이권쟁탈 및 침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주성 고취와 계몽적인 지식을 주지시켰던 것이다.³⁴⁾ 손인수는 기독교학교의 근거가 되는 이러한 정신을 ‘기독교적 민족주의’라고 불렀는데, 당시 많은 민족 지도자들

29) 지금도 신명고등학교 교정에는 1919년 3.1운동 당시 큰 역할을 담당했던 교사, 재학생, 졸업생을 기리는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신명의 딸은 3.1운동의 첫 햇불을 올렸다. 영남의 하늘에, 순정의 기쁨에 불을 붙여, 적의 총칼 앞에서 높이 치켜든 그 휘황한 햇불, 큰 의로움을 위해서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성 그 헌신성, 그 정신을 이어받아 참되게 살기를 다짐하는 소녀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여기 돌을 세운다.”(개교 65주년 기념 1972년 10월 23일 재학생 일동 세움)

30) 동아일보, “3.1운동 100년 역사의 현장, 제17화: 개성: 8호 여감방,” 2018, 10, 6.

31) 기전80년사편찬위원회, 『기전80년사』 (전주: 전주대흥정판사, 1982), 186-188.

32) 수피아100년사간행위원회, 『수피아100년사』 (광주: 예원, 2008), 250.

33)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에 관한 부분은 필자의 출처, 기독교학교교육론 제6장을 참조하여 기술함.(박상진, 기독교학교교육론 (서울: 예영, 2006), 134-160).

34) 손인수, 『한국교육사연구(하)』 (서울: 문음사, 1998), 241.

이 기독교학교의 교사로 참여하게 된 것도 이러한 교육이념에 호응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³⁵⁾ 손인수는 기독교학교의 건학정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미션학교의 설립정신은 기독교정신을 널리 전함으로써 이웃 사회를 위하여, 서양의 문물과 사상을 소개 전달하여 낡은 유교적 구습(舊習)을 개혁하고, 나아가 민주적인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동시에 우리 민족에게 자주·자립하는 정신적 자세를 확립하는 데 두었다. 이 이념에 따라 선교사들은 미션학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서구적 교육제도와 신학문을 소개하는 일에 개척자적 소임을 다했을 뿐 아니라, 또 민주주의를 가르치기도 했다. 그리하여 그들이 소개한 신학문과 민주주의의 영향은 차차 민간인 사이에서 높아져 개화사상의 요소가 되었고, 이것이 마침내는 민족주의의 성장과 그 이념을 형성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국권상실로 고민할 때, 이들 미션학교는 교육구국운동의 주역을 담당하게 되었다.³⁶⁾

물론 일차적으로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단시일 안에 기독교 신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기독교학교의 교육방침은 “무비판적인 서구화나 서양인의 생활풍습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국인을 더 나은 한국인으로(Koreans better Koreans only) 만드는 것에 두었다.”³⁷⁾ 배재학당의 경우 그 건학이념은 설립자 아펜젤러가 제정한 학훈인 ‘욕위대자 당위인역’(欲爲大者 當爲人役)에서 볼 수 있는바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에 기초되어 있다. 즉, 나라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화학당의 건학이념은 설립자 스크랜튼 여사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한국인 여성으로서의 위치를 바로 깨닫고 한국인, 나아가서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양성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경신학교는 “자기 동족들에게 진리를 간증하게 될 전도자와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었으며, 학생들이 나아가서는 그들이 받은 교육이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삼았다.³⁸⁾ 남강 이승훈은 도산 안창호의 연설에 감동을 받고 오산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의 연설은 ‘국가와 민족이 망하면 아무 것도 소용이 없다. 민족을 살리는 것이 조선사람 모두의 급선무다. 도탄에 빠진 민족을 살리려면 개인의 자각이 필수적인데, 청년의 교육이 없이는 이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것이 오산학교 교육철학의 핵심이다. 오산학교는 인재 양성을 통한 교육 구국(教育救國)의 이념 아래, 교육 방침을 ① 건전한 인격의 함양, ②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족운동가 양성, ③ 실력을 구비한 인재의 양성, ④ 건강한 체력의 훈련 등에 두었다.

당시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의 공통점을 열거한다면, 첫째,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신앙심을 갖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둘째, 기독교적 품성을 구비한 인격자로서의 양성, 셋째,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및 교역자 양성, 넷째, 자주적이며 독립정신이 투철한 한국인 양성, 다섯째, 당시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민족 지도자 양성 등을 들 수 있다.³⁹⁾ 결국 한국의 근대 기독교학교는 1910년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기독교적 신앙에 입각해 일체의 압제에 항거하는 교육의 산실이 되었다. 이러한 교육을 앞장서서 실천하였던 교사들과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3.1운동에 참여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건학이념의 구현이요 건학이념에 터한 교육의 열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5) 손인수, “한국근대 민족주의 교육운동 연구,” 『근대 민족교육의 전개와 갈등』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18.

36) 손인수, 『한국교육사연구(하)』, 242.

37) 한규원, 『한국 기독교학교의 민족교육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2003), 36.

38) 한규원, 『한국 기독교학교의 민족교육 연구』, 40. 이들 학교 외에도 정신여학교(眞信女學校)는 ‘하나님을 믿자, 바르게 살자, 이웃을 사랑하자,’ 송의여학교(崇義女學校)는 ‘신앙을 겸비한 인물의 배양,’ 송실학교(崇實學校)는 ‘한국의 국가, 사회와 교회를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한영서원(韓英書院)은 ‘우리 민족의 살 길은 내 손으로 능히 나를 기르는 능력을 주는 교육’을, 영명학교(永明學校)는 ‘전도(傳道), 개화(開化), 민주주의(民主主義)’를 건학이념으로 삼고 있다.(한규원, 『한국 기독교학교의 민족교육 연구』, 40-43.)

39) 한규원, 『한국 기독교학교의 민족교육 연구』, 44.

2.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 성경교과

3.1운동은 항일운동이요 민족 독립운동이면서도 신앙에 기초한 종교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만이 아니라 천도교, 불교 등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종교계가 중심이 되어 독립선언문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민족의 독립이야말로 신의 뜻이요 일체로부터의 해방과 자유가 궁극적 가치요 진리임을 믿는 신앙에 기초한 운동이었던 것이다. 특히 기독교학교가 이 운동에 주도적일 수 있었던 것은 3.1운동의 정신인 민족의 독립과 자유가 바로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바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⁴⁰⁾ 당시의 기독교학교는 일체의 여러 가지 탄압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신앙교육에 집중하였고 성경을 제1의 과목으로 교육하였다. 당시 기독교학교에서의 성경교과목은 신앙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과목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과목이었다.⁴¹⁾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역사이며, 고난 가운데서도 의인은 불의에 대항하여 싸워 마침내 정의가 이긴다는 민족교육과 항일운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었는데, 1900년에 신약(新約)이, 그리고 1911년에 구약(舊約)이 완전히 번역되어 출간, 보급되어 널리 읽혀지게 되었다.⁴²⁾ 성경 보급은 1905년에 98,498권이 반포될 정도로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성경이 한국민족의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 위로와 소망, 그리고 저항의식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⁴³⁾ 당시 기독교학교에서는 성경교육이 바로 민족교육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는데, 연동소학교의 경우, 교과과정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문학, 초등소학(3권), 산학신편, 수학, 지리, 체조, 작문, 습자”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교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⁴⁾

경신학교는 신앙교육을 위해 성경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가르쳤다. 1890년대에는 성경 시간에 <한문성서>를 중심으로 <십계명>과 시구로 된 <예수의 생애>등을 가르쳤다. 1902년 예수교중학교 때에는 성경과목이 <그리스도의 생애> <요한복음> <신구약> <로마인서> <에베소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등으로 개설되었다. 이러한 성경과목의 교재는 대개 게일(J.S. Gale) 교장이 번역하여 사용하였다.⁴⁵⁾ 그리고 학생들의 신앙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1916년부터 교목 혹은 성경교사를 두고 예배를 인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게 하였다.⁴⁶⁾ 성경 교과목은 선교사들이 직접 가르치거나 교장이 주로 담당하였는데, 신앙형성은 물론 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 예컨대 기독교학교인 선천 신성(信聖)학교 교장 맥쿰(G. S. McCune)은 학생들에게 직접 성경을 가르쳤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택하여 정의로 무장된 약자가 강대한 적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가르쳤다. 이는 곧 일체에 대항하는 한국인은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다.⁴⁷⁾ 성경 가운데 특히 출애굽기가 자주 인용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이집트에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 독립의식과 항일의식을 고취하였다. 또한 기독교학교에서 베드로전서 3:13-16의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와 로마서 9:3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있는 자니” 등을 낭독함으로써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던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도 하였다.⁴⁸⁾

40) 3.1운동을 신앙운동사적으로 이해하는 연구논문에는 대표적으로 이덕주의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가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3.1운동은 종교적 신앙운동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3.1운동의 기본이념인 ‘민족의 독립과 자주’가 기독교적 신앙 가치이며 이에 대한 일체의 탄압에 대해 ‘신앙수호’의 차원에서 일어난 운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3.1운동의 비폭력 평화운동의 성격도 신앙운동적 차원으로 해석할 때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34(3), 1990, 3, 133-156.)

41) 한국교회 초창기 기독교학교의 성경 과목에 대한 내용은 필자의 출처, 『기독교학교교육론』 (서울: 예영, 2006), 150-151.를 수정, 보완하여 기술함.

42)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90-94.

43) 한규원, 『개화기 한국기독교 민족교육의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1997), 233.

44) 『연동교회 100년사』 (서울: 연동교회, 1995), 169.

45) 경신사편찬위원회, 『경신사: 1885~1991』 (서울: 금영문화사, 1991), 207-208.

46) 강영택, “초기 기독교학교에서의 신앙교육,” 박상진 외, 『기독교학교, 역사에 길을 묻다』 (서울: 예영, 2013), 128.

47) 손인수, “한국근대 민족주의 교육운동 연구,” 15-16.

이렇듯 기독교학교에서 성경을 통해 민족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준 선교사들과 교사들은 “명목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한국의 독립을 위한 열렬한 챔피언”들이었다.⁴⁹⁾ 학생들은 다른 어느 교과목보다도 성경과목을 통하여 민족의 지도자로서 준비되고 나라의 독립을 준비하는 일군으로 양성되어 갔다. 이러한 신앙교육과 성경교육의 열매로서 기독교학교의 3.1운동에의 주도적 참여가 가능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이후 기독교학교의 설립이 더욱 활발해졌고, 기독교학교에서 이루어진 신앙교육과 성경교육의 부흥이 3.1운동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⁵⁰⁾ 종교적, 신앙적 동인에 대한 고려없이 3.1운동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정확한 3.1운동에 대한 파악이 아닌 것이다. 3.1운동은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을 포함한 거대한 신앙운동의 물결로 보아야 한다.

3. 기독교적 교과교육

3.1운동 당시의 기독교학교는 예배나 성경과목만이 아니라 일반 교과목 교육을 통해서도 기독교교육을 실시하였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을 실천하였다. 기독교학교의 학생들은 이러한 교과목 교육을 통해서도 항일 민족독립 정신이 고양되었고 이것이 적극적인 만세운동에의 참여를 가능케 한 잠재적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국어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⁵¹⁾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범하여 식민지 지배를 할 때 가장 강하게 시행하는 식민지 정책이 국어를 말살하는 것이다.⁵²⁾ 기독교학교 가운데 국어를 가장 먼저 가르친 학교는 이화학당으로서 1889년부터 읽기, 쓰기, 작문, 편지쓰기 등을 가르쳤다. 그 이후 경신학교, 한영서원, 배재학당 등이 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인데, 당시 의식이 있는 선교사나 한국인은 국어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선교사 존스(George H. Jones)는 1902년에 ‘국문독본’을 지었으며, 주시경(周時經)은 ‘국어문전음학’(國語文典音學), ‘국문초학’(國文初學)등을 지었고, 현채(玄采)는 ‘유년필독’(幼年必讀), ‘신찬초등소학’(新纂初等小學) 등을 지었다. 이들 국어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애국사상과 민족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쓰인 것으로, ‘유년필독’의 경우는 1909년 일제가 한국의 학부(學部)를 조종하여 학교에서 이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불인가 교과용도서’ 처분을 내렸으며, 또 내부대신(內部大臣)의 명의로 ‘발매반포금지도서’ 처분을 내려 학교에서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⁵³⁾ 현채의 유년필독에는 ‘아국아신’(我國我身)이라는 과가 들어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아국(我國)이라 함은 타국(他國)이 있는 연고요, 아신(我身)이라 함은 타인(他人)이 있는 연고며, 아(我)의 자유하는 권은 사람마다 상천(上天)이 주신바라 타인이 감히 빼앗지 못할바요, 아국도 또한 그러한지라 타국의 간섭을 물리쳐 자주권을 잃지 아니하고 독립하는 실상 힘을 지킨 후에야 아국이라 하나이다. 그러지 아니하면 아국을 보전치 못하고 아국을 보전치 못하면 아신을 보전치 못 하나이다⁵⁴⁾

또한 ‘독립가’가 등장하는데, “이 강산 우리 강산 남의 강산 아닐세, 당당독립 우리 대한 세계 일등 되어보세, 우리 청춘소년 어서 독립하세 우리 청춘소년 어서 독립하세 독립이로다 독립이로다 우리 대한을 독립이로다”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⁵⁵⁾ 비록 국권을 상실한 비참한 지경에 처했지만 학생들

48) 한규원, 『한국 기독교학교의 민족교육 연구』, 156.

49) 한규원, 『한국 기독교학교의 민족교육 연구』, 156.

50) 평양대부흥운동과 기독교학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편, 『평양대부흥운동과 기독교학교』 (서울: 예영, 2007)을 참조할 것. 평양대부흥운동과 3.1운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141-144.)를 참조할 것.

51) 박상진, 『기독교학교교육론』, 149-156.

52) 한규원, 『한국 기독교학교의 민족교육 연구』, 71.

53) 한규원, 『한국 기독교학교의 민족교육 연구』, 79.

54) 현채, 『유년필독』, 유년필독법례, 1907, 140-141.

55) 한규원, 『한국 기독교학교의 민족교육 연구』, 84.

에게 국어교육을 통해 민족정신을 일깨워주고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기독교학교의 음악교과는 그 기원을 찬송가에서 찾을 수 있다. “1885년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성경과 함께 찬송가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나라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온 찬송가도 함께 가르치면서부터”⁵⁶⁾ 서양음악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찬송가 형태의 창가로서 기독교학교 음악교과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⁵⁷⁾ 창가(唱歌)라는 말은 신문화가 들어올 때에 독일어의 Lied, 영어의 Song을 한자로 번역한데서 유래하는데, 실제로는 찬송가에서 시작된다.⁵⁸⁾ 이러한 창가가 정식으로 교과과정에 채택되면서 찬송가도 더 빠른 속도로 보급되었다. 찬송가 가운데 ‘주의 군대여 앞으로 나가자,’ ‘다 깨어라 주의 군대여,’ ‘그리스도 군병가’ 등은 기독교 학생들로 하여금 일제 침략에 맞서서 싸우라는 항일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창가교육의 영향은 단순한 교과교육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창가운동이라는 교과 외 활동으로 확산되었다. 공주의 영명학교는 운동회 때 ‘독립가’나 ‘그리스도 군병가’를 부르며 가두행진을 하기도 하였고, 특히 교장 윌리엄즈(Frank E. C. Williams)는 ‘그리스도 군병가’를 가르침으로 민족독립의식을 강조하였다.⁵⁹⁾ “우리 대장 예수님은 전능하시니. 원수마귀 무서워 말고 집전해보세. 큰 승전할 때까지 앞에 나가서. 앞으로 앞으로 달려나가서. 마귀 체세를 떨하세.” 이러한 창가는 기독교 신자가 군대가 되어 일제를 공격하라고 격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미션학교에 있어서 교육의 성격도 종래에는 산수, 물리, 화학, 지리 등의 과목이 학생들의 호기심을 끌어들였지만, 1905년 이후에는 ‘국권회복’의 운동으로 창가가 중요한 학과목이 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애국가, 국책보상가, 독립가가 전국적으로 유행되게 되었다. 당시 찬송가는 애국운동과 민족저항주의의 상징이었고, 일제 통감부는 이러한 창가를 소위 ‘불온창가’(不穩唱歌)라 하여 금지하였다.⁶⁰⁾ 찬송가는 순수한 예배 의식에서 떠나 자주독립을 표현하는 노래로 변모하였는데, 찬송가에서 시작된 이러한 창가는 “구한말의 풍운(風雲)과 망국(亡國)의 비통한 운명 속에서 짝튼 종교적 성향과 내셔널리즘의 표현이었으며, 찬송가와 함께 구한말 우리 민족 역사의 단편 바로 그것”이었다.⁶¹⁾

기독교학교는 체육과목을 통해서도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을 고취시켰는데, 당시에는 체육(體育)이라는 용어보다는 체조(體操)라는 용어로 불리었다.⁶²⁾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근대식 교육을 실시하면서, 전통적인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소홀히 여겨왔던 체육을 강조함으로 지(知), 덕(德), 체(體)가 균형잡힌 전인교육(全人教育)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체조교육은 단순한 체력의 훈련으로 그 의미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민족적인 의지와 감정을 강력히 표출하는 교과’로서 구국운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⁶³⁾ 기독교소학교(基督教小學校)인 삼화항(三和港)의 경우는 교과과정에 하루 두 번씩 복을 치면서 체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활발한 기상을 길러주며 자주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 일제가 일제에 항거하는 시위로 간주하며 감시하였다는 내용이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에 기록되어 있다.⁶⁴⁾ 또 학교 체육은 병식(兵式) 교련(教練)과 다를 바 없이 이루어졌다. 많은 학교에서 군대 나팔과 복을 갖춘 악대(樂隊)가 조직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연주하는 음악에 맞추어 학생들은 목총을 메고 군대식 훈련을 받았다. 이러한 체조와 교련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기를 북돋우고 애국심을 고취하였는데 한 선교사는 한 기독교학교의 경우를 묘사하고 있다.

56) 조용만 외 2인, 『일제하의 문화운동사』 (서울: 민중서관, 1970), 64.

57) 선교사들은 선교에 필수적인 찬송가를 편찬하였는데, 감리교의 존스(George H. Jones)와 로드와일러(Louisa C. Rothweiler)가 1892년에 편찬한 찬미가, 언더우드(Horace C. Underwood)가 1893년에 편찬한 찬양가, 감리교에서 1895년에 편찬한 찬미가, 같은 해에 미국북장로교 선교사 리(Graham Lee)와 기포드(Mrs. M. H. Gifford)가 편찬한 찬성시 등이 선교 초기에 나온 찬송가이었다.(한규원, 『개화기 한국기독교 민족교육의 연구』, 313.)

58) 손인수, “한국근대 민족주의 교육운동 연구”, 18.

59) 한규원, 『한국 기독교학교의 민족교육 연구』, 162.

60) 손인수, “한국근대 민족주의 교육운동 연구”, 22.

61) 손인수, “한국근대 민족주의 교육운동 연구” 23.

62) 손인수, 『한국근대민족교육의 이념연구』 (서울: 문음사, 1983), p.249.

63) 한규원, 『한국 기독교학교의 민족교육 연구』, 144.

64)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제1권 제61호, 1907. 8. 8.

어떤 학교들은 교련과 체조에 훌륭한 성과를 보였다. 강서(江西)에서 온 학교가 평양에서 열린 4월 운동회 때 도장관(道長官)이 주는 1등상을 탔다. 이 학생들은 말쑥한 복장에 십자(十字) 견장(肩章)을 양 어깨에 달고 성경책과 찬송가책을 군대 배낭같이 만들어 등에 지고와서 매우 인상적이었다.⁶⁵⁾

기독교학교에서 “체육을 통한 육체적, 정신적인 힘의 발산을 항일운동에 쏟아 민족을 구하고자” 1905년 5월에는 ‘황성기독교청년회 운동회’가 조직되어 자주 운동회를 개최하였다. 이 운동회는 일제에 대한 항일정신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자주독립을 표방하는 민족운동의 역할을 담당하였다.⁶⁶⁾ 이렇듯 성경교과만이 아니라 국어, 음악, 체육 등의 일반 교과목도 기독교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항일 의식을 고취하였는데, 이러한 기독교학교의 교육이 3.1운동에 있어서 기독교학교의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를 가능케 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기독교학교의 교사

3.1운동은 교사와 학생,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하는 운동이었다. 기독교학교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3.1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독교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앎과 삶이 일치하는 기독교 민족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역마다 설립된 기독교학교의 교사들이 앞장서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거의 전교생이 선생님을 따라 시위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이 주도한 경우에도 교사들과 논의를 하였고 교사와 학생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만세시위를 이끌어갔다. 3.1운동 당시 몇몇 기독교학교에서 교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자.

신명여학교가 전교생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은 3.1운동 전해인 1918년 21세의 나이로 신명여학교 교사로 부임한 임봉선(1897-1923)의 역할이 컸다. 대구에서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8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때 신명여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교사 임봉선(당시 22세, 6회 졸업생)과 이재인(31세), 이선애(22세)는 학생들에게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일제의 압제에 있는 우리나라를 자주독립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급선무요 우리의 살길이니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 비밀리에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준비를 갖춘 뒤 이날 낮 전교생 50여명과 함께 서문시장 밖에 모여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임봉선 선생은 머리에 수건을 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이끌었다. 이들은 일제의 무자비한 진압에 의해 체포되었고 여학생들은 나이가 어린 것이 참작돼 석방되었지만 임봉선 등 교사들과 졸업생들은 재판에 넘겨져 임봉선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임봉선은 이 과정에서 얻은 후유증으로 1923년 2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⁶⁷⁾

부산의 일신여학교의 3월 11일 만세시위도 교사들의 영향이 컸다. 이 학교의 주경애 교사는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만세시위를 할 것을 설득하였는데,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김반수 학생은 다음과 같이 당시를 회고하였다. “10일 밤 10시경 독립운동의 벽찬 감격에 가슴 두근거리며 주경애 선생의 기숙사 방에 모였다.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해 전깃불을 끈 뒤 벽장 속에 들어가 이불로 창을 가리고 교대로 망을 보며 촛불을 밝혀서 태극기를 만들었다....태극의 동그라미는 사발을 뒤집어 그리고, 깃대는 학교 대나무밭에서 구해 100여 개(일본 측 기록은 50개)의 태극기를 준비했다.” 당시 주경애와 박시연 교사는 학생들의 민족의식을 일깨웠고, 학생들은 그런 선생님들을 잘 따랐다. 3월 11일 만세시위에 참여했던 교사와 학생들은 일경에 체포되어 부산진 주재소에서 고초를 겪었는데, 주경애와 박시연 교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였다.⁶⁸⁾

65) Lak-Geon George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0), 329.

66) 손인수, “한국근대 민족주의 교육운동 연구” 25.

67) 동아일보, ‘3.1운동 100년 역사의 현장: 제29화, 대구 신명여학교, 2019. 1. 19.

68) 동아일보, ‘3.1운동 100년 역사의 현장: 제31화, 부산 일신여학교, 2019. 1. 26.

배재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학생기독교청년회를 지도하였던 교사 김진호는 서울시내 학생 동원과 이필주 목사가 속한 민족대표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 당시 김진호는 배재학당에서 한글과 한문,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이면서 동시에 정동제일교회 전도사로 교회 구내 사택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같은 구내에 거주하던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이자 3·1운동민족대표 33인중 1인으로 서명한 이필주(李弼柱, 1869~1942) 목사를 통해 3·1운동 준비단계에서부터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이필주 목사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서울 시내 각국 영사관에 배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독립선언서>를 서울시내 각국 영사관에 전달하는 일을 위해 믿을만한 학생들을 동원하였는데, 오홍순 외 수 명의 학생들을 통해 3월 1일 영사관에 배포하였고 3월 3일에는 역시 학생들을 통해 독립운동 유인물 <국민회보>를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리고 만세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배재동료교사 강매 등과 함께 독립운동 유인물을 만들어 학생들을 통해 서울시내에 배포하다가 3월 15일 경찰에 체포되었다.⁶⁹⁾

숭일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3.1운동에 적극 가담하게 된 동기는, 평소에 학교에서 애국심과 독립심을 고취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늘 나라를 위해 기도해왔었기 때문이다. 3월 9일 교사 최병준은 오웬 기념각에서 학생들에게 ‘그리스도는 온몸을 희생하여 계급제도를 타파하고 자유를 힘썼다. 그 교도인 우리들은 어떠한 장애라도 배제하고 그 목적을 관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교하여 생도의 독립운동 참가를 호소하였다. 그리고 10일 아침, 최병준은 숭일학교 주요 생도들에게 인쇄물을 약 20장씩 교부하고 배포구역 및 운동 개시 시각을 고지하였다.⁷⁰⁾ 그날 오후, 최병준은 숭일학교 학생들을 인솔하여 작은 장터를 향해 나갔다. 그들은 가마니에 담아두었던 태극기, 독립선언서 등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시내로 향하였다. 광주 지방의 독립만세운동은 두 달여 동안 연 21회에 걸쳐서 행해졌으며, 시위군중은 1만 2천명, 일본 경찰의 총칼에 희생된 사람은 28명, 검거된 사람은 자그마치 1천 8백 31명이나 되었다.⁷¹⁾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숭일학교 교사와 학생 29명이 감옥에 갇히고 혹독한 고문을 당하게 된다. 당시 감옥에 갇혀있는 교사, 학생들을 위해서 숭일학교 학생들은 기숙사에 모여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를 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 경찰과 헌병의 감시가 더욱 심해졌지만 학생들은 개의치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하여 숭일학교 기숙사는 ‘민족운동의 아지트’가 되었다.⁷²⁾

3.1운동 당시 기독교학교의 교사들이 헌신적일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학교 설립 당시부터 교사 선발 및 연수에 큰 비중을 두고 기독교사를 세워나갔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은 기독교학교 교사의 선발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기독교 신자만 교원으로 채용하였다. 또한 기독교학교 교사들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선교지부 중심지마다 단기 사범과를 부설하고 강습을 받게 하였다. 사범과는 그 초기에는 주말과 방학기간 중에 개강하였다. <그리스도신문> 1987년 5월27일자에 보면 당시 사범교육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글을 발견할 수 있다. “각 처 교회학당에서 예수를 믿는 선생들이 어디든지 모여 선생의 직분과 수법과 사기와 지도와 위생법과 여러 가지 규칙을 공부하면 유익할 터이니 무론 경향하고 학당 선생된 이가 와서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⁷³⁾ 이 글에서 보듯 기독교사들을 모집하여 교사의 사명과 역할, 교수방법, 생활지도, 위생관리 등에 관해서 가르친 것을 알 수 있다. 후년에 이르러 이 사범과는 하기학교 형식을 취하여 정식 사범학교 구실을 하게 되었다.⁷⁴⁾ 1916년의 총회회의록의 학부위원 보고에도 “각 학교 교원들은 사범에서도 공부하거나 우리 교회 내에도 사범강습소를 가합한 곳에 두고 방학시를 이용하여 교사를 양성하여 이후 시험에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당시 교사들의 처우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는 나은 편이었지만 교회가 설립한 기독교학교는 매우 열악하였다. 연동소학교의 경우 “교사들은 급료 없이 무료로 봉사했고 1907년 가을에

69) 이덕주, 『배재학당 통사』 참조.

70) 김복현(김철)의 21명 지방법원 판결문(1919.6.16.) 최병준은 3월 9일 저녁 김강으로부터 독립선언서 1천여장을 받아 3월 10일 아침 숭일학교 보통과, 고등과 학 학년 대표자로 경두법, 김철주, 김성민, 김정수 외 1명을 뽑아 6명에게 약 20장씩 선언서 등을 교부하고 남문 밖 또는 동문 밖 혹은 서문통에서 배부하도록 부서를 정했다.

71)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서울: 소명출판, 2008).

72) 황행자, ‘양립동에서 숭일학교 역사 찾기,’(광주 숭일중학교)에서 부분 발췌.

73) 그리스도신문, 1권 9호, 1897. 5. 27.

74) 백낙준, 『한국개신교사(1832-1910)』 (서울: 연세대출판부, 1998), 341.

비로소 2명의 유급교사를 채용했다.”⁷⁵⁾는 기록을 보면 그 당시 기독교학교의 교사들은 보수와 관계없이 사명감으로 교육하였을 알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학생들이 더욱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3.1운동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⁷⁶⁾

5. 기독교학교의 저항

1919년 3.1운동에 기독교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제의 압제에 대해 저항한 것은 1919년 이전까지 일제가 기독교학교를 탄압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해 온 기독교학교의 저항 정신과 맞닿아 있다.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는데, 이 해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였고, 드디어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을 강압적으로 맺음으로 일본은 한국을 그들의 보호국으로 만들고 이때부터 의도적인 식민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교육분야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일제는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학교를 탄압하기 위한 수 많은 교육법령을 공포하게 된다. 통감부 소위 식민지교육을 펼치기 위해 1906년 이후에 공포한 교육법령을 연대순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일제의 공포 교육법령(1906-1909)⁷⁷⁾

법령	공포년	법령구분
사범학교령	1906	칙령41호
고등학교령	1906	칙령42호
외국어학교령	1906	칙령43호
보통학교령	1906	칙령44호
고등여학교령	1908	칙령22호
사립학교령	1908	칙령62호
사립학교보조규정	1908	학부령147호
공립사립학교인정규정	1908	학부령15호
교과용도서검정규정	1908	학부령16호
실업학교령	1909	칙령56호
실업학교령시행규칙	1909	학부령1호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	1909	학부령2호
사범학교령시행규칙	1909	학부령3호
고등학교령시행규칙	1909	학부령4호
외국어학교령시행규칙	1909	학부령5호
보통학교령시행규칙	1909	학부령6호

이 가운데 특별히 1908년 8월 26일자로 공포된 사립학교령은 그동안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을 고취해 온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학교를 억압하려는 의도에서 발포된 것으로 신설 사립학교는 물론 기존의 모든 사립학교들도 다시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들을 점차적으로 폐교시키려는 음모를 드러낸 것이다. 즉, 겉으로는 사립학교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내세워 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시설이나 교육조건이 열악한 사립학교들을 폐교시키기 위한 의도를 지닌 것이다. 사립학교령 제2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를 설립코저 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구(具)하여 학부대신(學部大臣)의 인가를 수(受)함이 가(可)함. 1. 학교의 목적, 명칭 및 위치, 2. 학칙, 3. 교지 교사의 평면도, 4. 일개년 수지예산, 5. 유지방법. 단 기부금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함이

75) E. H. Miller, The Korea Mission Field, Vol III. No. 9. (1907. 9), 141, 『연동교회100년사』, 168에서 재인용.

76) 박상진 외, 『기독교학교, 역사에 길을 묻다』 (서울: 예영, 2006), 참조.

77) 박상진 외, 『기독교학교, 역사에 길을 묻다』, 236.

가(可)함, 6. 설립자, 학교장 및 교원의 이력서, 7. 교과용도서명, 전항 제4호를 제한 외 각호의 사항에 이동을 생(生)한 시(時)는 학부대신(學部大臣)에게 보고함이 가(可)함.”⁷⁸⁾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학부대신(學部大臣)이 사립학교 설립을 관장하되 그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물론 기부금에 대한 증빙서류까지 첨부케 하고, 이를 학부대신이 판단하여 인가를 내주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립학교 설립 및 인가를 통제하려고 하였다.

일제는 사립학교령을 제정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1911년 사립학교규칙(私立學校規則)을 제정·공포하였는데, 이는 1908년의 사립학교령을 대폭 개정한 것으로 “사립학교 설립인가 사항을 강화시키고 교과용도서는 총독부 편찬 혹은 김인정 교과서로 한정하였으며, 교원(敎員)의 자격기준을 일본어에 통달한 자로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⁷⁹⁾ 당시 총독부는 이러한 사립학교규칙에 의거하여 통치 이전에 출판된 한국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민족정신을 조장할만한 책들을 모두 불살라버리거나 판금 조치를 취하였다. 이렇게 해서 금지된 책 종류가 50가지가 넘었다.⁸⁰⁾ 특히 기독교학교에서 민족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당시 기독교학교에서는 ‘집사가 군병들아’와 같은 찬송가를 부름으로 항일정신을 고양시켰는데 총독부는 학교에서 찬송가 부르는 것을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사실 사립학교규칙의 제정은 기독교계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를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원의 자격기준에 따라 일본인 교원이 사립학교에 배치되어 일본어 보급을 시도하였고, 결국 사립학교를 관공립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1910년 사립학교 수가 1,973개교이던 것이 1912년에는 1,317개교, 1914년에는 1,240개교, 그리고 1919년에는 690개교로 줄어들어 10년 사이에 3분의 1로 감소하게 된다. 종교계 사립학교도 1910년 746개교에서 1914년에는 473개교로 감소하게 된다.⁸¹⁾

일본제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독교학교 억압 조치는 1915년 3월에 공포된 개정 사립학교 규칙에 의해서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개정 사립학교규칙의 주요 골자는 정부가 정한 교과과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성경, 지리, 한국사 등의 과목을 가르쳐서는 안 되며 그 대신 그들의 국민의례와 신도사상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학교에 대해서 성경과 종교의식 대신에 수신과목을 가르치도록 한 것은 기독교의 저항의식을 배제하고 일제에 동화시키려는 종교교육에 대한 탄압이라고 볼 수 있다.⁸²⁾ 이런 점에서 개정 사립학교규칙은 종교교육을 원천적으로 금하는 것이요 기독교학교에서의 기독교교육을 금지하는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⁸³⁾ 그래서 그 당시 총독부의 외사국장인 소송연(小松緣)은 “6년 내지 7년 사이에 한국에는 기독교학교가 하나도 남아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장담하기도 하였다.⁸⁴⁾ 개정 사립학교규칙은 기독교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시간과 종교의식을 금지시킨 조치일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종교와 교육을 분리시키는 조치를 의미하였다. 이것은 기독교학교들로 하여금 정체성의 위기로 받아들여졌는데, 학교를 설립한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건학이념이 구현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제의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학교의 탄압에 대해 많은 기독교학교들은 건학이념 구현을 가로막는 성경교육 및 예배의식 금지 자체를 문제시하고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심지어 여러 학교들은 보통학교의 인가를 거부하고 잠중학교로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심한 탄압을 받았다. 결국 순천의 성은(聖恩), 선천의 보성(保聖) 등 많은 장로교계 기독교학교가 스스로 폐교의 길을 택하였다.⁸⁵⁾ 이러한 일제의 탄압에 대해서 폐교를 불사한 기독교학교의 항거의 연속선상에서 3.1운동이라는 저항이 가능

78) 한규원, 『한국 기독교학교의 민족교육 연구』, 168.
 79) 문형만, “일제의 식민교육과 종교교육의 갈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근대 민족교육의 전개와 갈등』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152.
 80) 손인수, “한국 근대교육의 이념과 실제,” 『한국교육 제1집: 신교육제도 도입과 교육관 변천에 관한 연구』, 109.
 81) 이만규, 『조선교육사(하권)』 (서울: 을유문화사, 1949), 199.,
 82) 손인수, 『한국교육사연구(하)』, 352.
 83) 오인탁, “일제하 민족교육과 종교교육의 갈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근대 민족교육의 전개와 갈등』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238.
 84) A. J. Brown, The Mastery of the Far East, 591, 오인탁, “일제하 민족교육과 종교교육의 갈등,” 238에서 재인용.
 85) 오인탁, “일제하 민족교육과 종교교육의 갈등,” 240.

하게 된 것이다. 즉, 3.1운동에 기독교학교의 참여는 갑자기 일제에 항거한 움직임이 아니고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온 일제의 기독교학교 탄압에 저항해 온 기독교학교였기 때문에 가능한 저항운동인 것이다.

IV. 향후 기독교학교의 과제

1. 기독교학교의 자율성 회복

3.1운동에서 기독교학교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만세시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기독교 학교들이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독교교육을 통해 민족을 사랑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나라를 구하겠다는 교육의지를 지닌 설립자들이 학교를 세워 그런 설립정신을 구현하였다. 당시 기독교학교는 학생선발의 자유를 지니고 있었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입학할 수 있었다. 기독교학교는 건학이념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성경을 비롯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었고, 신앙이 투철한 교사를 청빙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었다. 학교경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총독부의 통제도 심하였지만 그래도 설립자나 교장이 학교를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소위 사립학교 자율성의 다섯 가지 조건인 학생선발, 교육과정, 교사임용, 등록금 책정, 법인구성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충실한 기독교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1운동 당시의 기독교학교는 1910년을 전후하여 점차 강화되는 일제의 사립학교 탄압, 특히 기독교학교의 탄압에 저항하면서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지켜나갔고, 기독교학교의 학생들이 3.1운동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열매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기독교학교는 일제의 탄압 속에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시보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더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성이 상실되어 있고,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과정을 작성할 수 있는 자율성 없이 사립학교이면서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획일적인 국가교육과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공식적으로 예배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성경을 교과로 가르칠 수 없다. 심지어는 교사임용마저 기독교인으로서 세례교인인 자를 청빙하는 것은 특정 종교만을 우대하는 종교편향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금지하는 경향이 있는 실정이다. 등록금 책정권 등 학교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 상실은 물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방이사제의 도입으로 법인 구성도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자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흔들리고 있다. 기독교학교가 기독교 정신으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평준화 제도로 인한 사립학교의 준공립화 현상으로 인해 상실된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이제는 회복하여 명실상부한 기독교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때에 3.1운동에서 보았던 기독교학교의 역량을 다시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2.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기독교교육 강화

3.1운동 당시 기독교학교의 학생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한 항일, 구국운동에 참여한 것은 신앙의 힘이었다. 이들은 기독교학교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을 경험하게 됨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신앙이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학교는 신앙교육을 가장 중시하였다. 초기 기독교학교들은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졌던 한국인에 의해 설립되었던 분명한 건학이념이 있었는데, 신앙을 지닌 교양인을 양성하여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분명한 신앙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성경수업은 학생들에게 기독교신앙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다. 대부분의 교과목들도 기독교 신앙과 연결되었는데, 학생들은 기독교학교에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신앙에 근거한 애국애족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에 기초한 건학이념과 그에 따른 신앙교육이 3.1운동의 정신적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기독교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앙교육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기독교학교는 사실 신앙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이고, 기독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신앙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학교는 ‘학교’로서는 존속되고 있지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에 ‘기독교’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못한 실정인 것이다. 성경 잠언1:7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기독교교육의 근본이다. 교육내용으로서의 교과가 중요하지만 신앙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왜 공부하는지의 목적을 깨닫게 한다. 신앙은 모든 교과 지식에 생기를 불어 넣듯이 생명력을 공급하여 단지 머리 속에 암기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한다. 기독교학교가 일반 학교처럼 지식만 전달하는 ‘학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앙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물론 신앙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국가주의적 획일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현실, 특히 평준화 제도 속에서도 신앙교육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독교학교가 우선순위를 다시금 신앙교육에 두고 건학이념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기울이게 될 때 3.1운동 당시의 기독교학교처럼 중심에서부터 변화를 경험한 학생들이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이웃과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3. 기독교학교 교사의 소명과 영성

3.1운동 당시의 기독교학교의 교사들은 단지 교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서 많은 경우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것은 이런 교사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역별로 만세운동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교사와 학생은 함께 하였고, 앞장서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는 교사들을 따라 거의 전교생이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의 기독교학교는 대부분 소규모의 학교로서 전교생이 수십 명에 불과하였고,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있었고 이러한 관계구조 속에서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강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당시의 교사들은 ‘안정된 직업’으로서의 교사직이 아니라 ‘교육 구국’이라는 동기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는 소명감에 의해서 헌신하였기 때문에 ‘교육의지’가 강하였고,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그대로 학생들의 변화로 연결되었다.

기독교학교는 ‘교사’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사’가 있는 학교다. 기독교학교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사 요인이다. 교육시설이나 교육과정, 교육과정이 다 중요하겠지만 결국 교사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기독교학교를 다녔다는 것은 기독교사를 만났다는 것이요, 기독교학교를 좋은 학교로 기억하는 것은 만났던 교사가 좋은 교사였기 때문이다. 3.1운동 당시의 기독교학교의 영향력을 오늘날 재현하기 위해서는 당시 교사들이 지녔던 신앙적, 교육적, 애국적 영향력을 재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인’ 관계구조가 중요한데 ‘나와 그것’의 3인칭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2인칭 관계로의 변화가 요청된다. 지식의 전달이라는 얇은 차원만이 아니라 보다 깊은 내면의 교감이 가능한 삶의 차원의 만남이 요청된다. 기독교학교의 교사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본을 보이셨던 ‘성육신적 교사’가 될 수만 있다면 기독교학교가 ‘중심’을 변화시키는 교육의 진원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독교사로서의 소명감과 영성을 지닌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원대학원 대학교’같은 특화된 형태의 기독교 교사 양성 기관이 필요하다. 오늘날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사를 양성하는 교원대학이 없다. 교목만이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기독교교육의 통로가 되도록 교사를 양성하는 기독교사 양성기관이 꼭 필요하다.

4. 기독교학교의 공공성 확대

3.1운동 당시의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자녀를 기독교학교로 보낼 정도로 공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5%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 기독교학교는 민족을 위한 학교, 항일 구국의 중심에 있는 학교로서 공공성을 지니고 있었다. 지역마다 기독교학교는 마을 학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지역의 중심으로서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의 교회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개인의 영달이나 출세를 위한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라는 이미지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군을 양성하는 학교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물론 기독교학교는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을 갖도록 하는 소위 '미션스쿨(mission school)'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공적 의미를 상실한 신앙교육이 아닌 애국애족, 항일구국의 가치와 잇대어 있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니고 있었다.

오늘날 기독교학교가 비기독교인 또는 비종교인들로부터 받는 비판 중 하나는 공공성의 부족이다. 기독교학교가 자율성을 강조하고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지나치게 개인의 신앙으로 제한되는 신앙의 사사화(privatization)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기독교학교라고 하지만 철저히 입시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세속'학교와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충분히'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공공성'을 지닌 학교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적 공공성'이란 기독교신앙에 기초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으로 나타나는 공공성을 의미하는데, 기독교적 자율성을 상실하거나 제한하는 공공성이 아니라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보다 공적일 수가 있는, 신앙의 연속선 상에 있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다.⁸⁶⁾ 기독교적 상징구조는 절대로 개인의 신앙으로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사회변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와 평화와 사랑은 불의한 압제에 항거하게 하고 남존여비나 인간 차별과 같은 왜곡된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3.1운동 당시 기독교학교가 지녔던 바로 그 기독교적 공공성을 오늘날 기독교학교가 회복하여 입시위주의 교육에 대한 대안적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교회와 기독교학교의 연계

3.1운동 당시의 기독교학교는 교회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상호 협력하였다. 대부분의 기독교학교는 교회가 설립한 학교였으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중 하나로 기독교학교를 세웠다.⁸⁷⁾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 선포와 가르침과 병 고치는 사역으로 이해한 교회는 지역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지역교회만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독교학교를 설립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병원을 설립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해외 교회 선교부가 한국의 각 지역마다 형성한 소위 미션 스테이션(mission station)이다. 토착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교회 일학교'운동도 교회 부설 학교를 세우는 운동인데, '교회 옆의 학교,' '학교 옆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학교 설립 운동으로서 이로 인해 수많은 기독교 소학교들이 세워지게 된다. 당시의 노회록을 보면 주일학교 보고만이 아니라 주중학교 보고란이 별도로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가 설립한 주간학교의 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노회와 총회에는 학무국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것은 교회가 설립한 학교의 업무를 교단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서로서, 초대 학무국장에 원두우 목사가 임명되었는데, 그가 바로 경신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 선교사였다.⁸⁸⁾

오늘날 한국교회는 기독교학교와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녀야 한다. 기독교학교는 교회 밖의 교회와 관계 없는 기관이 아니다. 기독교학교의 교회의 사명의 연속선 상에 있다. 물론 기독교학교는 별도의 학교법인에 의해 설립되도록 되어 있고, '제3자 개입 금지의 원칙'에 의해 교회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없도록 법제화되어 있지만 그것이 교회와 학교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가 기독교와 한국교회 전체의 다음세대를 세우고 건강하게 신앙의 대 잇기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기독교학교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야 한다.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에는 일관성이 중요한데, 교회와 가정, 학교에서 일관성있는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와 가정의 분리도 심각하지만, 교회와 학교의 분리는 보다 심각한데, 공교육에 속한 학교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탈신앙화, 탈교회화, 탈종교화 현상이 나타나

86) 기독교학교의 공공성에 관한 논의는 박상진 외, 『기독교학교의 공공성』 (서울: 예영, 2014) 참조.

87) 기독교학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폭넓은 논의는 박상진 외, 『기독교학교와 교회』 (서울: 예영, 2013) 참조.

88) 박상진 외, 『기독교학교, 역사에 길을 묻다』, 24.

는 것이다. 기독교학교도 더 이상 사유화되어서는 안 되며, 기독교학교 연합체도 보다 공고히 될 필요가 있으며, 한국교회가 기독교학교를 한국교회 사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V. 나가는 말

3.1운동은 외견상으로는 실패한 운동처럼 보인다. 일제로부터 민족이 독립하지도 못하였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기까지 일제 강점기의 역사는 지속되었다. 그러나 3.1운동은 민족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고, 특히 교육의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주축이 되어 일으킨 3.1운동은 그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고 학생운동의 뿌리가 되었다. 특히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비롯한 여성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게 되고, 여성들이 신교육을 받고 사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는 여성교육의 문을 열게 되었다.⁸⁹⁾ 무엇보다 3.1운동에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독교가 민족의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사회적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 기독교가 천도교, 불교와 함께 3.1운동을 이끌었고, 기독교학교의 학생들도 타 종교의 학생들 및 관공립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연대하여 활동함으로써 공공성에 공헌하였다. 어떤 점에서는 3.1운동이 하나의 거대한 전국적 규모의 시민교육, 민족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3.1운동이 불의와 독재, 압제와 억압에 항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3.1운동은 기독교교육 운동의 한 원형적 사건으로서 후에 일어나게 되는 학생운동과 교육운동, 시민운동과 평화운동의 한 범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3.1운동의 교육적 의미를 되새기며 그 뜻과 가치를 오늘의 교육을 통해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

특히 3.1운동 100주년은 오늘날의 기독교학교가 다시금 깨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제대로 추구할 수 없을 정도로 ‘준공립화’ 되어버린 이름뿐인 기독교학교가 아닌, 명실상부한 기독교학교로 거듭날 것을 요청하고 있다. 100년 전의 기독교학교들이 기독교 신앙교육을 통해 민족의 일꾼들을 키워내었던 것처럼 살아있는 기독교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회복하며 기독교 신앙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립하고, 그러면서도 민족과 국가에 공헌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함양하는 기독교학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날 기독교학교와 한국교회가 3.1운동 100주년을 분기점으로 삼아 기독교교육이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변혁을 추구해야 한다. 기독교학교의 학생들은 3.1운동 당시 지역마다 기독교학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역사적 사실을 깨닫고 기독교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하며, 그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일제에 항거한 선배들의 신앙과 애국 애족의 모범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학교의 교사들과 지도자들은 3.1운동 당시의 기독교학교 설립자와 교사들의 모습을 귀감 삼아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기독교 교육자로서의 소명과 정체성을 회복하여, 교육목적,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행정의 모든 면에서 ‘기독교학교 다움’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기독교학교를 교회적 사명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끌어안고 기독교학교를 지원하고 기독교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강한 지원 및 후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기독교학교들이 불씨가 되어 3.1운동이 타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기독교학교들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불씨가 되어 하나님의 교육운동이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참고문헌>

강영택, “초기 기독교학교에서의 신앙교육.” 박상진 외, 『기독교학교 역사에 길을 묻다』. 서울: 예영,

89) 김경식, 『한민족 교육문화사』 (서울: 교육과학사, 2008), 583.

- 2013.
- 경신사편찬위원회. 『경신사: 1885~1991』. 서울: 금영문화사, 1991.
- 계성100년사편찬위원회. 『계성100년사』. 서울: 다락방, 2006.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편. 『평양대부흥운동과 기독교학교』. 서울: 예영, 2007.
- 기전80년사편찬위원회. 『기전80년사』. 전주: 전주대흥정판사, 1982.
- 김경식. 『한민족 교육문화사』. 서울: 교육과학사, 2008.
- 김기석, 유방란. 『한국 근대교육의 태동』. 서울: 교육과학사, 1999.
-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문형만. “일제의 식민교육과 종교교육의 갈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근대 민족교육의 전개와 갈등』.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박상진. 『기독교학교교육론』. 서울: 예영, 2006.
- 박상진 외. 『기독교학교, 역사에 길을 묻다』. 서울: 예영, 2006.
- 박상진 외. 『기독교학교의 공공성』. 서울: 예영, 2014.
- 박상진 외. 『기독교학교와 교회』. 서울: 예영, 2013.
- 박용옥. 『김마리아: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 서울: 흥성사, 2003.
-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서울: 소명출판, 2008.
- 박혜진. 『일제하 한국 기독교와 미션스쿨』. 서울: 경인문화사, 2015.
- 백낙준. 『한국개신교사(1832-1910)』. 서울: 연세대출판부, 1998.
- 손인수. 『한국교육사연구(하)』. 서울: 문음사, 1998.
- 손인수. 『한국근대민족교육의 이념연구』. 서울: 문음사, 1983.
- 손인수. “한국근대 민족주의 교육운동 연구.” 『근대 민족교육의 전개와 갈등』.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수피아100년사간행위원회. 『수피아100년사』. 광주: 예원, 2008.
- 숭의100년사편찬위원회. 『숭의100년사』. 서울: 우일출판사, 2003.
- 신용하. 『한국민족 독립운동사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85.
- 연동교회. 『연동교회 100년사』. 서울: 연동교회, 1995.
- 오산중고등학교. 『오산팔십년사』. 서울: 오산중고등학교, 1987.
- 오인탁. “일제하 민족교육과 종교교육의 갈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근대 민족교육의 전개와 갈등』.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34(3). 1990, 3.
- 이만규. 『조선교육사(하권)』. 서울: 을유문화사, 1949.
- 이만열. “3.1운동과 한국 기독교: 3.1운동에서의 한국 기독교의 위치.”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34(3). 1990, 3.
-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 이치만. “3.1운동에서의 장로교의 역할과 1440 프로젝트.” 한국기독교학회. 『응답하라 1919: 3.1정신과 교회의 미래』. 2018. 10. 12.
- 이희천, 김혜경 엮음. 『정신130년사 상권』. 서울: 흥성사, 2017.
- 임희국.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학교 설립: 토착교회의 기독교학교 설립운동을 중심으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편. 『평양대부흥운동과 기독교학교』. 서울: 예영, 2007.
- 조용만 외 2인. 『일제하의 문화운동사』. 서울: 민중서관, 1970.
- 최재건. “3.1 정신과 대한민국의 건국정신.” 한국기독교학회. 『응답하라 1919: 3.1정신과 교회의 미래』. 2018. 10. 12.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1997.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 서울: 기독교문사, 2005.
- 한규원. 『한국 기독교학교의 민족교육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2003.
- 한규원. 『개화기 한국기독교 민족교육의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1997.
- 현재. 『유년필독』. 유년필독범례. 1907.
- Paik, Lak-Geon George.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0.
- Miller, E. H. The Korea Mission Field. Vol III. No. 9. 1907. 9.
- 그리스도신문. 1권 9호. 1897. 5. 27.
-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제1권 제61호. 1907. 8. 8.
- 동아일보. “3.1운동 100년 역사의 현장, 제11화: 비폭력.” 2018. 7. 14.
- 동아일보. “3.1운동 100년 역사의 현장, 제17화: 개성: 8호 여감방.” 2018, 10, 6.
- 동아일보. “3.1운동 100년 역사의 현장; 제29화, 대구 신명여학교. 2019. 1. 19.

동아일보. '3.1운동 100년 역사의 현장: 제31화, 부산 일신여학교. 2019. 1. 26.